

## 부자 벤처, 가난한 벤처

삼보컴퓨터 최환익

국내에 벤처 열풍이 불어 닥치기 시작한 것은 아마 IMF 직후가 아닌가 생각된다. IMF 후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신경제에 대한 저력으로 벤처를 지목하였고 이것을 모델로 하여 우리의 살길은 벤처 육성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던 것 같다. 바로 이 벤처 열풍에 기름을 부은 것이 전기나 자동차의 발명에 버금가는 것으로 비유되는 internet fever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사업 본질의 허약함 때문인지, 때마침 일어난 세계적인 경제의 성장 둔화 때문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인터넷 열기는 급격히 냉각되었으며, 더불어 벤처 열풍도 가라앉기 시작했다.

예전에도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벤처라 불릴 수 있는 회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부터 벤처라는 이름으로 통칭되기 시작했다. 서비스 모델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던 인터넷 산업은 수익모델의 부재 논쟁 속에서도 아이디어 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한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수많은 벤처들이 생겨났으며, 이런 현상은 대표 업체들의 코스닥 등록으로 인하여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기도 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하였듯, 열기가 식어버린 지금 인터넷 사업은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였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던 벤처 창업 열기도 다소 조정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생소하던 벤처란 단어가 지금은 IMF란 단어와 더불어 모든 이들이 입에 올리는 보편적인 단어가 되었다.

그렇다면 벤처 사업이란 어떤 것일까? 벤처라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그림은 몇 명의 개발자가 밤샘을 하면서 좁은 작업공간에서 기술개발과 제품개

발을 하는 것이다. 그 후 개발된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회사가 상장되어 창업자들이 억만장자가 되는 과정, 이것이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떠오른 Microsoft 및 실리콘 벨리에서 전해져 오던 백만장자 탄생 뒷이야기에 의하여 우리에게 각인된 벤처의 이미지다. 멀리만 있던 벤처에 대한 환상이 국내에서도 몇몇 회사가 비슷한 수순을 밟아 신흥 기업군을 이루게 되면서 비로소 현실감 있게 되었다.

벤처란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모험 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모험이란 무엇일까?

### 불확실한 모험과 계산된 모험

벤처는 만들어지는 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기술을 기반으로 출발하는 벤처이다. 기술 기반이라 함은 특정 기술을 보유한 경우나 개발능력을 보유한 경우 개발작업에 대한 애착이나 약간의 시장성을 보고서 의기 투합한 창업자들끼리 랩 형태의 회사로 출발하는 것이다. 이 부류의 회사들은 멤버들간의 강한 믿음을 담보로 창업이 되며 창업 초기의 멤버들간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생긴 이익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여 회사의 비전을 조금씩 만들어 가며 랩 형태에서 회사의 형태로 변모하는 일반적인 경우라 할 수 있겠다. 회사의 비전과 상치될 지라도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선 기꺼이 다른 부분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지난 10여년간 창업된 많은 정보통신 관련 벤처들이 이런 부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둘째는, 사업성을 기반으로 출발하는 벤처이다. 기술의 보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특정 기술을 기반

으로 한 사업분야를 정하고 사업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유치하고 회사를 만드는 경우다. 유입된 자금을 바탕으로 회사를 유지하면서,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특정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가설을 정하고 가설이 TRUE 값을 가지기 위한 충분 조건을 나열한 뒤 그 조건을 만족시켜 나가는 일종의 수학적 증명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 열풍 속에 생겨난 몇몇 포탈업체를 포함한 벤처들이 이 부류에 해당된다.

언급한 두 가지 형태의 벤처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여행에 비유하자면 첫 번째 경우는 방랑에 해당되고 두 번째 경우는 탐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모험심을 가지고 떠나는 것은 동일하지만 차이점은 계획의 유무와 발생 가능한 위험의 예측이다. 방랑의 경우 어떠한 계획도 없으며 또한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여행이다. 목적지가 어디이며 어떤 경로로 목적지에 도달할 것인지 알 수 없기에 준비할 수 없는 모험을 감수해야 한다. 탐험의 경우 목적지로 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대비한다. 탐험은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경로를 찾는 작업이며 철저히 계산된 모험이라 할 수 있다.

벤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와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자가 존재해야 한다.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선 자금이 필요하며, 통상은 엔젤 투자자 혹은 벤처 캐피탈리스트라 불리는 외부 투자자로부터 조달된다. 투자자들의 목적은 사업성이 좋은 분야에 선투자를 하여 미래에 발생할 기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계획서를 기대하며, 계획에 기재된 가설들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투자 행위를 하게 된다. 사업의 성공을 위한 선결 조건과 실패에 이를 수 있는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한 후 창업자와 투자자는 계산된 위험도를 감수하는 모험을 하는 것이다.

## 부자 벤처와 가난한 벤처

학교를 바탕으로 설립된 많은 벤처들의 경우 기술의 우수성이나 개발능력은 인정을 받고 있는 편

인 것 같다. 특히 정보IT 분야의 경우 일반 기업에서 다루기 힘든 분야들을 대학이나 대학원을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기에 창업의 가능성이 다양하다.

그러나 학교를 막 졸업한 또는 중도에 창업한 벤처의 경우 가난한 벤처를 지향하는 것 같다. 즉, 기술력은 있으나 그것을 사업으로 연결시키지 못하여 서클 활동이나 랩의 연장선상에 존재하는 기술 개발력만 내세우는 회사가 많은 것 같다. 이런 회사의 공통점은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라면을 끼니 삼아 움직이는 회사, 열정만으로 회사를 설립하다 보니 명확하지 않은 목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수립되지 않고 상황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개발계획 등이라 하겠다. 가난한 벤처들 중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험을 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부자 벤처를 꿈꿔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벤처의 최종 목표가 기술/연구의 결과를 상품화하여 상업적 성공화를 거두는 것이라고 볼 때 젊은이의 의기 투합만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아닌, 냉정한 경제원리를 바탕으로 사업성을 제시하고 기술과 아이디어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받아 떼떽하게 운영되는 벤처가 필요하다. 그 동안 부자 벤처가 나오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벤처의 특성을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조명해온 폐쇄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벤처에 대한 투자가 상장 후 이익 실현, 그리고 채투자라는 money game 사슬의 시작점이라 보면 벤처는 철저히 경제 논리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 동안 정보분야에 투자 확충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정보IT 업체들이 생겨났고 인력들이 배출되었으며 정보 IT에 대한 열기만큼은 세계 수준을 달리고 있지만 그에 비해 인지도는 높지 않다. 내세울 만한 소프트웨어나 제품이 전무한 이유를 찾자면 계획성 없는 가난한 벤처만을 추구한 것이 주요 요인 중 하나인 것 같다. 부자 벤처라고 해서 성공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계획된 위험도 내에서 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난한 벤처에 비해 성공 확률이 높을 뿐이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뚜렷한 목표가 있기에 해야 될 일이 명료하며, 실패한다 할지라도 원인 규명을 통하여 다음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벤처의 설립과 운영은 지수 성가의 사업 모델이 아닌 정교한 분석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 과정이다. 투자자와 기술 그리고 경영자간의 role playing game이 벤처인 것이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듯, 벤처 창업 열풍이 식어 가는 이때 우리는 어떤 모델의 벤처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 환 익**

1988 서울대학교 전산공학과 졸  
1992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석사  
1993~1999 세콤기술 부사장  
2000~삼보컴퓨터 A. Partner  
현재 삼보컴퓨터 GPM Division  
Partner  
E-mail:hwanik@trigem.co.kr

**• 2001 추계 학술 대회 •**

- 일 자 : 2001년 9월 15일
- 장 소 :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 주 최 : 병렬처리시스템연구회
- 문 의 처 : 송실대학교 컴퓨터학부 전문석 교수  
Tel. 02-820-0680  
E-mail : mjun@computing.soongsil.ac.kr